

예술가 백남준의 환생 ‘사랑은 1만마일’ 특별전

3월말까지 G.MAP서 특별전
명상·열정·희망 등 3개 섹션
비디오·드로잉·아카이빙 선포
최초공개 ‘안심낙관’ 등 눈길

백남준의 영혼이 깃들어 괴짜다운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 백남준이 현대에 여전히 살아 있다면 지금의 기술로 이런 작품을 제작했을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특별전시 ‘백남준 ; 사랑은 10,000마일’의 마스코트로 온 전시장을 바이올린을 끌며 돌아다니고 있는 서빙로봇을 보며 든 생각이다. 요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빙로봇에 끈으로 바이올린을 단 것인데 젊은 시절 바이올린에 끈을 달아 길거리에 끌고 다니며 행위예술을 펼친 백남준을 오마주한 작품이다.

백남준을 연상케 하는 이 귀여운 작품을 내년 3월31일까지 이어지는 G.MAP의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백남준;사랑은 10,000마일’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G.MAP 1, 2, 3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로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드로잉,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에서 최초 선보이는 비디오 설치작품 ‘안심낙관’을 중심으로 예술의 치유적 힘과 가치를 조명한다.

더불어,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대 개인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에서 최초 선보이는 백남준의 작품 ‘안심낙관’을 내년 3월 31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의 특별전시 ‘백남준;사랑은 10,000마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제공

소장가(김수경 우리들그룹 회장·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 의한 특별전으로 백남준 미디어아트의 미술사적 의의 및 대중적 향수의 가치평가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백남준(1932~2006)은 동양과 서양, 음악과 시각예술, 새로운 과학 기술과 전통문화 등의 상이한 개념들과 매체를 한데 융합함으로써, 현대예술의 표현 범위를 무한히 넓힌 선각자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관습과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에 없던 예

술’에 일생을 바친 백남준의 삶과 마주한다.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은 1990년 ‘네온 TV’ 시리즈 중 한 작품의 제목을 빌려오며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 우주와 소통을 추구하던 그의 거시적인 비전과 공명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라는 제한적인 틀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 백남준을 맞닥뜨리는 것, 그가 구상하고 실현했던 인간, 기계, 자연의 공존을 기반으로 한 기술 매체 시대 속 인간성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는 1전시실 ‘Green: Meditation (그린:명상)’, 2전시실 ‘Red: Passion (레드:열정)’, 3전시실 ‘Blue: Hope (블루:희망)’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3개 전시실은 2000년에 제작된 백남준의 말기 작품 ‘삼원소’에서 보여준 ‘포스트 비디오’의 사상과 궤를 함께 한다. 비선형적인 레이저 빛으로 이뤄진 ‘삼원소’는 물, 불, 흙 이미지를 각각 삼각형, 원형, 사각형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파랑, 빨강, 초록의 삼원색으로 표현됐다. 미디어를 통해 탈경계와 소통을 추구한 백남준 예술세계

가 잘 드러난 걸작이다.

‘Green: Meditation’은 동양과 서양, 과학 기술과 전통적 요소와 같은 상이한 개념들이 매체와 맞닿은 세계를 선보이며, ‘Red: Passion’은 플렉서스 시기를 비롯한 백남준의 아카이브를 통해 그를 기억하고 실험정신을 반추한다. ‘Blue: Hope’는 백남준이 21세기를 자연과 인류가 전자 매체를 매개로 공생하는 시대로 예견한 것에 착안해 ‘디지털 휴머니즘’을 거론한다.

3전시실 비디오 작품 ‘안심낙관’이 눈길을 끈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에서 최초 선보이는 작품으로 ‘안심낙관’ 글씨 모양대로 연결된 각각의 비디오 화면에는 독특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재생되고 있다. 이는 기술매체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닿고자 했던 백남준의 치유적 기능을 담고 있다. 백남준은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해답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체성 즉, 인간적 본질에서 찾았다.

이경호 G.MAP 센터장은 “백남준 선생은 비빔밥 아트, 멀티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 철학자, 음악가, 예술가, 시인, 무속인, 엔지니어, 사상가, 경제인, 예언가 등을 합친 통섭적 미래 인간이었다. 이번 전시는 컬렉션 특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 은암미술관, 7일까지 ‘SEN의 기억과 행방’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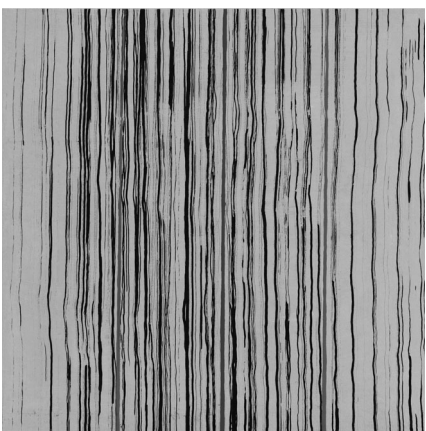
일본 아라이 요시노리 작가

광주 동구 대의동 은암미술관은 2023 은암미술관 창작공간 레지던시 1차 결과 보고전 ‘SEN(선)의 기억과 행방’을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일본의 아라이 요시노리 작가가 한 줄, 한 줄 선(SEN)의 예술을 펼쳐 보인다.

1949년 일본 나가노시에서 태어난 아라이 요시노리 작가는 1972년 가나가와 현에 소재한 토카이대학 교양학부 예술학과를 제1기로 졸업했다. 이후 대학에서 제자 양성과 함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 판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자유로운 역할을 탐구하며 다작을 해오고 있다.

아라이 요시노리 작가는 다양한 판(판화)에 의한 표현이나 입체 조형, 퍼포먼스 등을 시도한 가운데, SEN을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다. SEN이란 일본어로 ‘선’을 말하며, 영어로는 ‘line(라인)’이다. 새로운 표현을 모색하려고 실험적으로 실시한 것이, 선을 균등한 간격으로 똑바로 여러번 반복해 담겨 가는 퍼포먼스다.

작가가 1971년 대학 4학년 때 가을 졸업 연구 컨셉을 찾기 위해 방한하면서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후 그룹전, 개인전, 교류전 등 한국 각지로 40여 회의 예술여행을 했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작가가



아라이 요시노리 작 Soft Landing to Season(연착륙기). 은암미술관 제공

30년 전에 한국에서 구입한 종이와 이번 에 구한 새로운 종이 위에 먹으로 SEN을 시도했다.

작품에서 SEN은 단순한 선이 아니다. SEN은 표현의 기억을 깊게 빚어낸 것과 동시에, 현재를 각인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작가의 작업 대부분은 구현화이며 종이와 거리를 두고 전체를 바라보며 균형을 확인하고 잉크의 색을 바꾸어 색조를 조절하며 화면을 선으로 채워 간다. 작품은 적색, 녹색, 황색, 흑색을 사용하는데 각각 태양, 자연, 수확, 대지를 상징하며 삶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 은암미술관 레지던시 2기에 참여해 국내에서 체류한 4개월 동안 제작한 신작을 선보인다.

도선인 기자

관음사·동구청소년수련관 ‘참 좋은 인연’ 전시

12일까지 남구 대원빌딩 1층

대한불교조계종관음사와 광주동구청 소년수련관은 미술 재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미술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광주 남구 대원빌딩 1층에서 ‘참 좋은 인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미술지망생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한다. 전문 미술작가와 미술 지망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멘토링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전시는 초대작가, 부산전업작가, 청소년



박구환 작 Recollection(회상).

년 작품, 불교작가, 갤러리 및 개인 소장 작품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김도영, 안미

희, 이남이, 정인수, 박구환, 오광섭, 이상호 화백 등 약 40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특별 작품전’에서 세계적 금화 작가인 김일태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임직순, 문신, 황상근(난석당), 이우환 작가 등 작품이 전시된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대한불교조계종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은 “일생을 한 길로 공을 쌓아 일가를 이뤘던 작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시작이 이미 결실이니 인연의 수레바퀴는 만리에 향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 북구문화센터, 8일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

광주 북구문화센터는 2023년 연말 특별기획 공연으로 클래식 연주회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을 연다.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꽃송이가’의 하모니카 연주자로도 유명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사진)은 국내 최초로 클래식 하모니카를 전공한 연주자다. 2008년 아시아-태평양하모니카대회에서 총 3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성인독주, 2중주, 앙상블)의 영예를 안았다.

2009년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독일의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 트레몰로 솔로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2015년부터 3년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전국투어 콘서트에 솔리스트로 함께 출연

했다.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영훈’이 협연자로 나서며 다채로운 음색을 내뿜는 하모니카와 하모니를 선사한다.

탱고 음악의 제왕 ‘아스토르 피아졸라’,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과 하모니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비롯해 박종성 하모니시스트 자작곡 등 솔로, 피아노와의 듀오로 들려줄 예정이다.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